

Research Center

2016년 7월 28일

# 투자전략 Daily

- 이머징마켓 투자전략

중국 증시 급락, 아직 취약한 투자심리

- 중화권 증시 동향

규제 강화로 중국 증시 급락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베셀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코렌텍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비츠로셀, 스카이라이프,  
한국항공우주, 현대산업, 현대차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7/21(목)	7/22(금)	7/25(월)	7/26(화)	7/27(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2.22	2,010.34	2,012.32	2,027.34	2,025.05
	등락폭	-3.24	-1.88	1.98	15.02	-2.29
	등락종목	상승(상한)	423(1)	374(0)	474(1)	303(0)
		하락(하한)	366(1)	436(0)	320(0)	483(0)
	ADR	105.76	117.52	116.33	112.70	102.78
	이격도	10 일	100.41	100.08	100.06	100.63
		20 일	101.49	101.17	101.06	101.58
	투자심리	60	6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91	317	339	403
	거래대금	(십억 원)	3,921	3,697	4,053	4,073
코스닥	코스닥지수	708.12	707.54	704.96	705.4	701.09
	등락폭	3.09	-0.58	-2.58	0.44	-4.31
	등락종목	상승(상한)	534(2)	435(4)	545(3)	404(1)
		하락(하한)	541(0)	636(0)	531(0)	665(0)
	ADR	103.39	103.27	102.85	102.89	102.24
	이격도	10 일	100.99	100.69	100.21	100.19
		20 일	102.94	102.40	101.61	101.34
	투자심리	80	80	70	70	60
	거래량	(백만 주)	960	1106	897	1007
	거래대금	(십억 원)	4,479	3,953	3,484	3,631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83.3	1,309.5	931.6	287.0	142.6	142.6	89.5	12.3	257.7
	매도	2,306.6	1,065.8	1,035.3	204.4	174.0	252.9	120.5	17.6	265.9
	순매수	-123.3	243.7	-103.7	82.6	-31.4	-110.3	-31.0	-5.3	-8.2
	7월 누계	-921.4	3,570.3	-2,970.3	-74.4	-565.6	-1,405.7	-226.5	-77.8	-620.3
	16년 누계	-4,410.4	7,213.3	-4,141.3	-884.4	1,516.2	-3,167.2	-1,031.5	-764.9	190.8
코스닥	매수	3,266.9	170.8	102.4	28.1	18.0	20.3	11.7	1.9	22.4
	매도	3,183.9	188.8	157.8	40.3	18.1	47.2	24.3	2.2	25.8
	순매수	83.0	-18.0	-55.4	-12.1	-0.1	-26.9	-12.6	-0.3	-3.4
	7월 누계	716.6	131.8	-497.1	-65.6	-13.9	-183.4	-53.0	-9.9	-171.4
	16년 누계	3,911.2	347.0	-2,814.5	-346.8	-122.7	-888.6	-480.7	-121.2	-854.6

## 중국 증시 급락, 아직 취약한 투자심리

2016년 Target KOSPI	2,180pt
12MF PER	10.53배
12MF PBR	0.96배
Yield Gap	8.3%P

- ▶ 중국 본토 증시 급락, 정책 소강 상태에서 은행 WMP 규제 강화가 조정 빌미 제공
- ▶ 2015년에 약 8조위안의 WMP 순증, 하반기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 ▶ 주식시장에는 실질 자금유출보다 단기간 투자심리 악화 영향이 더욱 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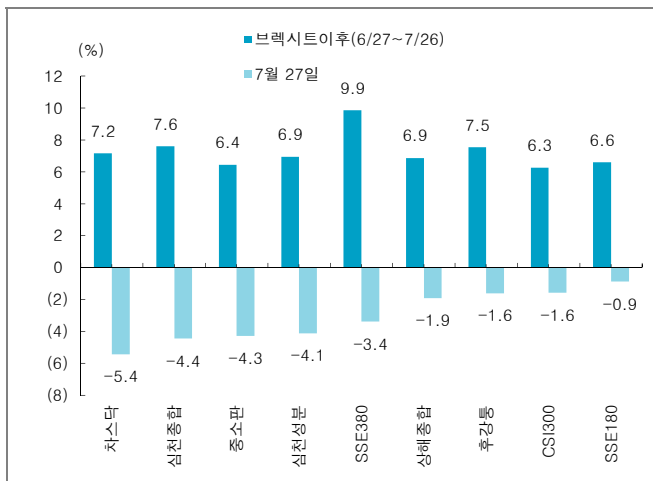
### ■ 중국 증시 또 급락, 신성장 산업들이 지수 약세 주도

금융권 규제 강화로 상해종합 -1.9%, 차스닥 -5.4% 폭락

브렉시트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가 또 급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1.9% 하락한 2,992p로 마감했으나 장중 4% 가까이 하락했었다. 또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차스닥 지수도 5.5% 폭락하며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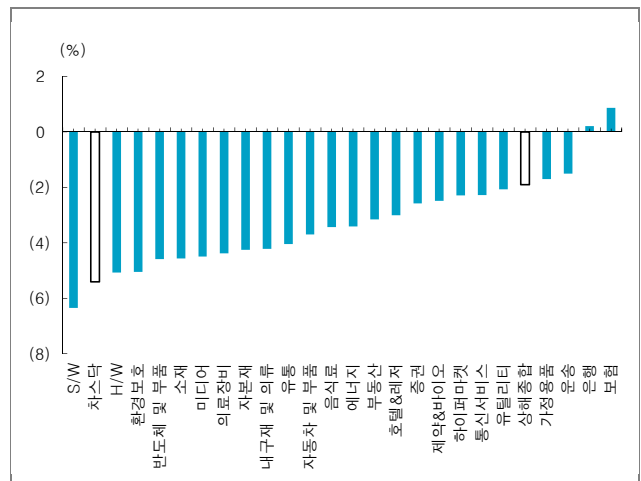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S/W(-6.3%), H/W(-5.1%), 환경(-5.1%), 반도체(-4.6%), 소재(-4.6%), 미디어(-4.5%), 의료장비(-4.4%) 등 신성장 산업들이 지수 약세를 주도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로 3,000선에 안착하던 중국 증시가 또 다시 변동성을 확대해 나갔다.

[그림 1] 7월 27일 중국 시장별 등락을 비교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2] 7월 27일 중국 본토 증시의 업종별 일일 하락률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 ■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가 증시 조정의 빌미 제공

통화 완화 기대감 약화 속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가  
증시 조정의 빌미 제공

27일 중국 주식 시장이 급락한 주요 원인은 통화완화 기대감이 약화됐던 가운데 정부의 금융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판단된다.

1) 통화완화 기대감이 약화되며 관망세가 농후했다. 브렉시트 이후 대외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6월 경기지표 부진으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통화 완화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기존 MLF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의지를 밝히면서 통화 완화 가능성이 약화됐다. 그동안 기대감에 상승했던 시장은 거래량이 줄면서 관망세가 우세했다.

2) 감독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는 주식시장 조정에 발미를 제공했다. 27일 주식시장 조정의 배경에는 감독당국이 은행 WMP<sup>1</sup> 업무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전해진 은행 WMP업무의 신규 개정안에 따르면, 1) 은행들의 운용 능력을 고려해 은행별 WMP를 일반과 종합형으로 나누고 일반WMP의 주식 투자 금지, 2) 은행 WMP는 직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당행이 발행한 비표준화자산들에 투자 금지, 3) WMP 상품과 투자대상 자산의 만기 일치, 4) 은행들의 구조화 WMP 발행 금지다. 만약 이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은행 WMP 업무는 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2013년 3월 28일에도 감독당국이 은행 WMP 상품 운용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해종합지수가 2.8% 급락했고, 은행주들이 7% 폭락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아직 루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의 경궁지조(惊弓之鸟)<sup>2</sup> 현상이 발생했다.

## ■ 2015년 WMP의 급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규제 강화 원인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갑자기 은행 WMP업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까?

WMP 규모 급증, 2015년 말  
23.5조위안으로 GDP의  
35%, 전년대비 57% 급증

2015년 말 기준으로 은행의 채테크상품(WMP)의 잔액은 23.5조위안으로 전년대비 56% 급증했다. 2014년의 증가율인 47%보다 높았고 연간으로 약 8조위안이 순증했다. 중국은 2013년에도 급격하게 늘어난 WMP가 기초자산과 투자자금의 만기 미스매칭(Miss Matching) 현상이 발생해 은행간 단기 자금금리가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한 경험이 있다. 최근 WMP 잔액의 빠른 증가는 금융리스크 확대를 수반한다.

2014년 이후 WMP 잔액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1) 부실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하락하는 환경에서 은행은 금융상품의 운용 및 판매를 통해 실적 개선의 수요가 있고, 2) 초저금리 시대에 개인들에게 예금(1.5%)보다 높은 금융상품(3.7%)의 수익성이 더욱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WMP 규모 급증, 위험자산  
비중 증가, 하반기 크레딧  
리스크 확대가 규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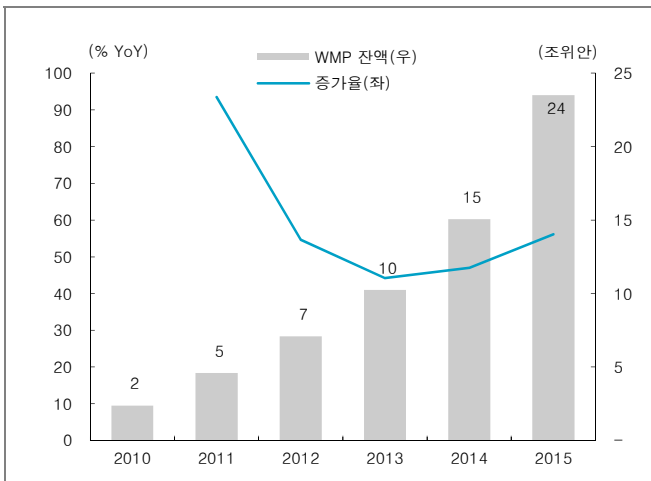
문제는 2013년 이후 은행 WMP의 만기 미스매칭 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중국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회사채 디폴트가 증가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회사채의 만기도래 물량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7조위안으로 상반기의 2.4조위안보다 3,000억위안 더 많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연간 도래규모에 상당하다.

<sup>1</sup> WMP는 Wealth Management Product의 약칭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임. 한국의 수익증권과 유사

<sup>2</sup> 황에 놀란 새라는 뜻으로 한번 놀랐던 사람이 조그마한 일에도 겁을 내어 위축된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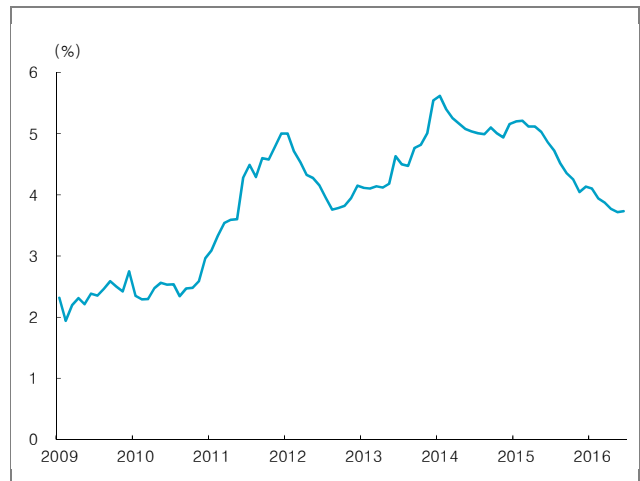
또한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배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신탁, 어음,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운용 투명성도 높지 않았다. 하반기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 중국 은행 WMP 잔액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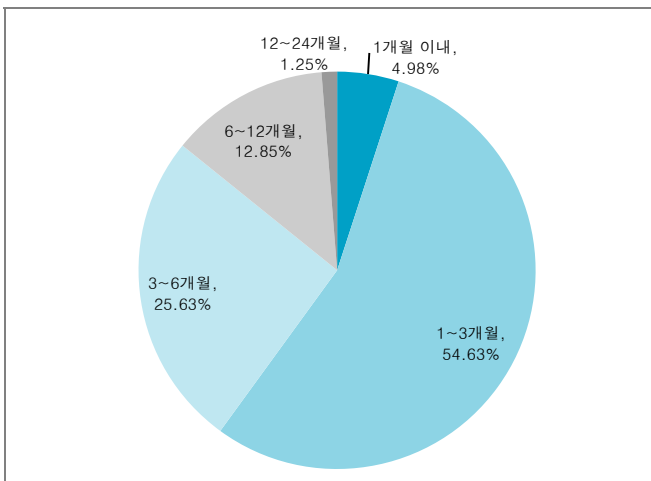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은행 WMP의 가중평균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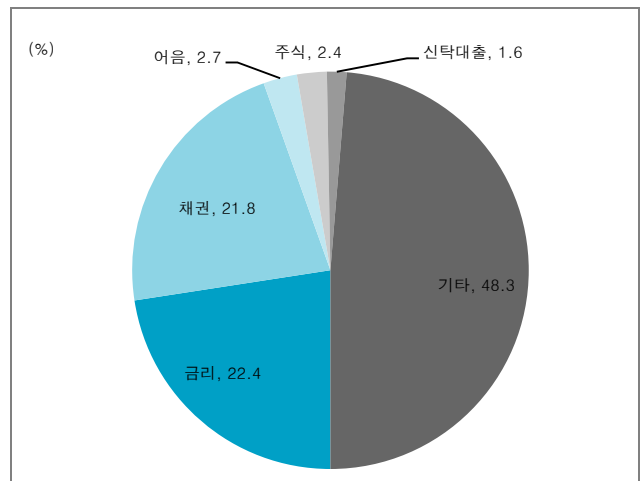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중국 은행 WMP 상품 만기구조별 비중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은행 WMP 상품의 투자대상 비중



주: 2016년 상반기 발행상품들의 기초투자자산 비중 기준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 주식시장에서는 수급 측면보다 투자심리 악화 영향이 더욱 클 전망

은행 WMP상품의 신규 개정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은행의 운용자금의 주식시장 유출입과 투자심리 악화로 구분된다.

**주식시장에는 자금 유출보다  
투자심리 악화 영향이 더욱  
클 전망**

우선 신규 개정안에 따른 기존 WMP자금의 유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말 은행의 WMP 금융상품 잔액이 23.5조위안이고, 주식 투자 비중이 약 2.3%, 보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주식 투자를 못한다고 가정해도 자금 유출규모는 약 5,400억위안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국 증시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인 6,000억위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당분간 압력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신규 은행자금의 유입 기대 약화, 정부의 금융권 규제 강화로 당분간 투자 심리가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 26일에 열린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하반기 자산 버블과 시스템 리스크 발생을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 은행 WMP업무에 대한 최종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나, 금융기관 디레버리징과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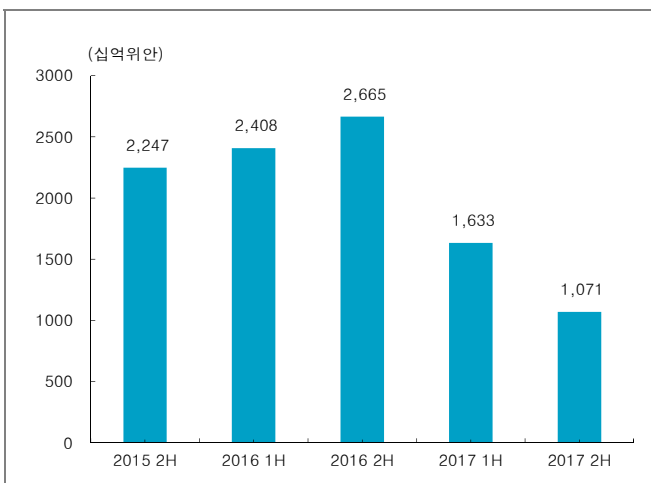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금융 리스크  
해소에 긍정적, 추가 폭락  
가능성 적음**

그러나 연초처럼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낮다. 아직 신규 개정안의 규제 수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는 전체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축소해주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국 증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완만한 상승 전망을 유지한다. 상해종합지수의 중심축은 상반기의 2,900p에서 3,000p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은 구조조정, 높은 기업부채에 따른 금융 리스크 확대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추세적인 강세를 형성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러나 상반기 증시 폭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경착륙 우려와 환율 리스크가 상당 부분 진정되었고 국유기업 개혁, 선강통 등 정책 호재들이 동반되면서 3분기 수급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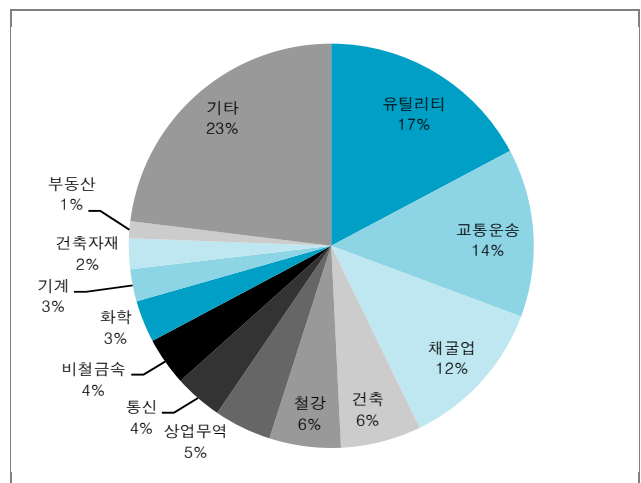
또한 하반기 경기 둔화 압력이 크고 대내외 불확실성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 완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장에서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음식료, 의료기기 및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2015~2017 반기별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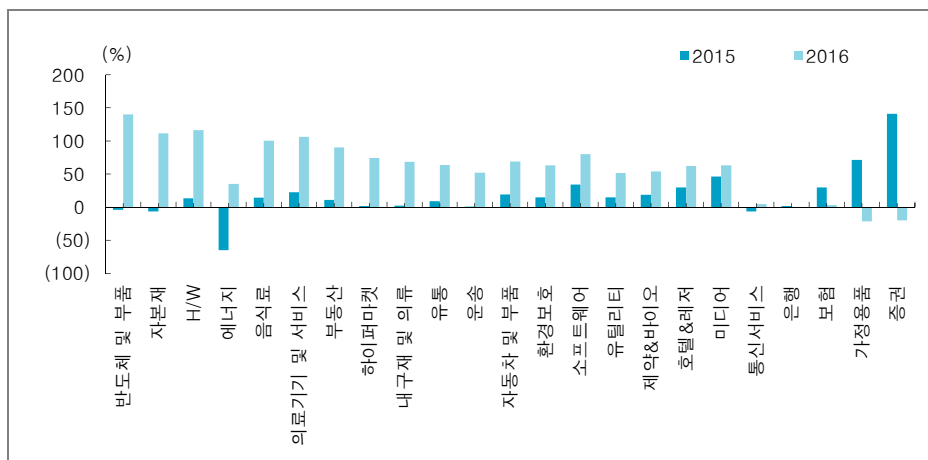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8] 하반기 만기도래 회사채의 업종별 분포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그림 9] 2015년~2016년 중국 A주 업종별 순이익 증가율 비교



주: 2016년은 WIND 추정치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규제 강화로 중국 증시 급락

- ▶ 상해종합지수 1.9% 급락, 은행들의 제테크 상품 운용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루머 확산에 약세
- ▶ 홍콩H지수 0.6% 상승, 일본의 경기부양 가능성 확대와 증시의 저평가 매력 부각 등에 강세

상해종합지수 1.9% 하락,  
소프트웨어, 원림공정, 포장  
소재, 통신 등의 업종 약세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1.9% 하락한 2,992p로 마감하며 3,000선을 하회했다. 약보합으로 개장한 증시는 오전 장 마감 직전에 급락했고 오후 개장 시 4% 가까이 급락했다. 그러나 장 마감 직전에 은행, 보험주들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다. 거래대금은 3,168억위안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313억위안 크게 늘었다. 직전일 공산당 내부회의에서 하반기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던 가운데 금일 시장에서 은행들의 제테크 상품(WMP) 운용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루머가 확산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또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통화정책 기대감도 약화됐고, 대외적으로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부각됐다. 업종별로는 보험, 항공수운, 통신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원림공정, 포장소재, 통신, 의료, 비철금속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중소형주의 급락으로 차스닥 지수는 5.4% 급락한 2,155p로 마감했다. 한편 외국인들은 후구통을 통해 9.8억위안 순매수했다.

홍콩H지수 0.6% 상승,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유틸  
리티 등의 업종 강세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0.6% 상승한 9,115p로 마감하며 본토 증시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FOMC의 통화정책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부각됐다. 한편 중국 감독당국이 은행 WMP 운용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루머에 본토 증시가 급락에 동조하며 1% 가까이 하락했다. 다만 오후에 들어 본토 증시의 급락세가 진정되고 아베 총리가 경기부양 발언을 하면서 다시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금융기관에서 하반기 홍콩 증시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되며 본토 증시를 선방할 것이란 전망도 긍정적이었다.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에너지, 금융 등의 업종이 상승했다.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7/27(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2,992.00	-1.91	-1.19	3.33	-15.46
심천종합	1,953.99	-4.45	-4.02	0.37	-15.37
차스닥	2,155.39	-5.45	-4.99	-1.66	-20.58
홍콩H	9,115.29	0.59	1.02	6.40	-5.65
Shibor 7일물 금리(% , %p)	2.36	0.51	1.68	-0.63	0.21
Shibor 1개월 금리(% , %p)	2.78	-0.07	-0.25	-3.86	-7.50
중국국채 3년물(% , %p)	2.47	-0.00	-0.35	-2.50	-3.87
위안/달러 고시환율	6.6671	-0.16	0.00	0.45	2.67
역내 위안/달러	6.6698	0.03	0.12	-0.34	-2.64
역외 위안/달러	6.6756	0.06	0.04	0.10	-1.60

주: 27일 오후 5시 38분 기준



## 시장 동향과 특징주

### 미 FOMC를 앞두고 관망세 속 기관 매도세로 하락

- 미국증시는 미 연준의 FOMC 정례 회의 시작과 더불어 성명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국제유가 약세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장 중 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로 마감.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미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외국인과 금융투자 매수에 개인과 기관 매도세가 맞서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세로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로 700P선을 위협하는 약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으며, 1조9,900억원 규모의 중소형 OLED 생산시설 투자 결정 및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LG디스플레이가 신고가를 경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64.9%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를 기록한 한전기술이 초강세를 보였으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에 만도가 급등. 또한, OLED 테이프 사업 성장 기대감에 신화인터텍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리우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스포츠용품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스트아시아홀딩스가 견조한 흐름세를 보임. 반면, 육돈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우리손에프앤지는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로 27% 이상 급락했으며, 2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숍 더페이스샵 색조브랜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전량 회수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LG생활건강이 8% 이상 급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b>SK하이닉스(000660)</b> <b>▶33,450(+4.37%)</b>	<b>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분기 신규 스마트폰들의 모바일 DRAM 탑재량 증가, PC 수요 회복에 따른 메모리 가격 안정화 등에 힘입어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li> <li>- 반도체 주요 업체들이 DRAM 투자를 자제하고 NAND 투자에 집중하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DRAM 수급 개선 진행 기대</li> </ul>
<b>신화인터텍(056700)</b> <b>▶4,930(+10.79%)</b>	<b>OLED 테이프 사업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부터 개발을 진행해 온 OLED 모바일용 테이프 사업이 올해 매출액 273억원을 기록하며 전사 외형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li> <li>- 올해 3분기 초부터 모바일 테이프 신규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됐으며, TV용 광학필름 사업부는 하반기 성수기 진입에 진입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li> </ul>
<b>우리손에프앤지(073560)</b> <b>▶2,910(-27.25%)</b>	<b>신규 상장 첫날 급락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는 이지바이오 자회사로 육류 가공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육돈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로 급락세</li> <li>- 당사는 직영농장 20개와 계약농장 25개를 운영 중이며 국내 최대 규모임.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1등급 이상 비율은 74.6%로 국내 평균 63.9%를 크게 웃뎀</li> </ul>

##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b>테고사이언스(191420)</b> <b>▶54,200(+10.6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눈 밑 주름개선 세포치료제인 'TPX-105'에 대한 국내 임상2상을 진행중으로 올해 연말 임상2상을 완료해 내년 미용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li> </ul>
<b>LG디스플레이(034220)</b> <b>▶30,450(+4.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분기 영업이익 급감에도 불구하고 17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과 2조원 규모의 OLED 시설 투자 결정에 신고가 경신</li> </ul>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베셀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베셀 (177350)	10,400 (+2.5)	10,150 (0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E, CEC-Panda, CSOT, Tianma 등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중국 LCD In-Line 시스템 제조 분야 시장점유율 1위로 고객사들과 높은 신뢰관계를 유지</li> <li>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대형 LCD 투자에 따라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며,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에 따른 수혜 전망</li> </ul>
BGF리테일 (027410)	210,000 (+0.0)	210,000 (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점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형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li> <li>마진율이 높은 백종원 도시락 등 신선식품의 판매 호조와 PB상품 브랜드인 '헤이루(HEYROO)', 원두커피 사업 등의 상품력 강화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전망</li> <li>음료, 빙과 등의 매출 증가로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부각될 전망</li> </ul>
GKL (114090)	25,550 (-7.4)	27,600 (0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분기를 기점으로 드롭액의 회복세가 예상되며 메르스 기저 효과와 홀드올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li> <li>예상 배당수익률 3.5% 수준으로 배당매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li> <li>Silver고객(카지노에서 소비가 큰 일반 고객) 대상 영업이 강화됨에 따라 고객 mix개선 예상</li> </ul>
한국항공우주 (047810)	81,000 (+17.1)	69,200 (0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초 25%에 달했던 오버행 물량은 현재 11%로 축소되었고, 남은 물량 중 한화테크윈 지분 6%는 시장 출회 가능성이 낮음. 오버행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어 주가 상승 제한 요인 해소</li> <li>국내 수리온헬기 3차 양산과 상륙기동헬기 등 약 3조원의 수주가 예정되어 있고, 태국 등 다수의 국가와 T-50시리즈 수출 협상을 진행하는 등 하반기로 갈수록 대형 수주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li> </ul>
블루콤 (033560)	14,300 (-12.3)	16,300 (0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제품보다 1.5배 이상 판매가가 높은 프리미엄 블루투스 헤드셋(톤플러스 HBS-1100)출시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li> <li>LG전자의 높은 인지도와 음질 및 디자인 등의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가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 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li> </ul>
정상제이엘에스 (040420)	6,660 (+0.2)	6,650 (0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aramel Tree' 컨텐츠를 미국, 중국, 이란, 이집트 등지에 수출하고, 미국의 세계적 출판 유통기업인 IPG사와 스토리북 배분 계약을 맺는 등 컨텐츠 경쟁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li> <li>학령인구 감소세 둔화로 교육시장 안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어학원의 과점화에 따른 수혜 예상. 또한 시가배당률 6%를 상회하는 배당매력을 겸비</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한국항공우주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코렌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코렌텍 (104540)	17,250 (-2.0)	17,600 (07/12)	42.5	4.4	3.0	185	9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화된 표면처리 기술(MAO, 금속 3D 프린팅)을 보유한 국내 고관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li> <li>- 전세계적인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공관절 시장 성장의 수혜</li> <li>- 미국 내 가장 권위 있는 정형외과전문 연구기관 및 인공관절 전문의들과의 개발자문 계약 체결로 미국 시장 중심의 해외 매출 성장 본격화 예상</li> </ul>				
대상 (001680)	30,600 (+4.3)	29,350 (06/22)	2,946	131	82	2,288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신부문이 빠른 공정 효율화 작업으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베스트코의 실적 회복 기대</li> <li>-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 향상 전망. 내년 초 공장이 완공되는 인도네시아의 전분/전분당 사업추가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커질 전망</li> <li>- 올해 예상 PER 12.3배로 업종 평균 21.0배 보다 크게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li> </ul>				
삼광글라스 (005090)	81,000 (-10.2)	90,200 (05/31)	327	21	40	8,163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홈쇼핑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홈쇼핑 채널 및 온라인을 계약으로 판매채널 다각화에 성공. 올해는 로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 중심의 성장으로 실적 호전 전망</li> <li>- 군장에너지 중 발전용량이 가장 큰 규모의 GE4(250MW)기가 5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2분기부터 군장에너지의 실적 회복 기대</li> </ul>				
SK머티리얼즈 (036490)	140,100 (+13.0)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li> <li>-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li> </ul>				
한섬 (020000)	39,600 (-1.9)	40,350 (04/22)	710	84	69	3,132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및 신규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세 가시화</li> <li>-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온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 확장으로 추가 성장여력 제고 예상</li> <li>-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평가 상태</li> </ul>				
유한양행 (000100)	293,500 (+6.0)	277,000 (03/28)	1,247	72	116	11,337	2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저효과와 함께 전문의약품 성장과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로 양호한 1분기 실적 예상</li> <li>- 유한화학(지분 100%)과 유한킴벌리(지분 30%)의 이익 턴어라운드 본격화 예상</li> <li>- 신약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amp;D 아웃소싱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와 지분가치 부각 가능성</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LG생활건강(051900)

## 매수(유지)

목표가: 1,300,000원(유지)

종가(7/26): 1,092,000원

## 흠 잡을 데 없는 실적 호조

## ■ What's new : 이번 없는 실적 개선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 34% 증가한 1,554억원과 2,254억원을 기록, 영업이익은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했다. 수익성 높은 화장품 부문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7%p 개선된 14.6%를 기록했다. 화장품 부문 영업이익이 1,530억원(+55% YoY, 영업이익률 18.6%), 생활용품 부문 영업이익이 370억원(+6% YoY, 영업이익률 10.0%), 음료 부문 영업이익은 350억원(+3% YoY, 영업이익률 9.8%)을 기록했다.

## ■ Positives : 프리미엄 화장품 호조, 3분기 인바운드 시장 큰 폭의 기저 효과

화장품 부문 매출액이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브랜드별로 'Whoo' 매출액이 전년대비 66%, 'SU:M'도 123% 급증했다. 면세점 매출액이 96% 급증해 우리 예상인 77%를 상회했고 방판 매출액도 38% 증가했다. 중국 현지 화장품 매출액은 전년대비 26% 증가에 그쳐 1분기 53% 증가에서 둔화되었다. 2분기 면세점, 방판, 중국 현지 화장품 사업의 화장품 부문 매출 비중은 각각 34%, 12%, 8%로 아직 면세점과 방판 등 국내 사업이 동사에게는 가장 주요한 매출 채널로써 성장성은 율동하다. 2분기 중국인 관광객수가 메르스 기저가 본격화된 6월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면세점 카운터수도 전년대비 37% 증가, 신규 면세점 효과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 관광객 수는 3분기 80%대 급증이 예상되어 3분기 동사의 면세점 증가율은 100% 이상으로 예상된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다각화로 인한 인당 구매액 상승 추세를 감안해 연간 면세점 성장률을 57%에서 68%로 상향했다. 'Whoo'와 'SU:M' 등 프레스티지 화장품 호조로, 고가 채널인 방판, 백화점 채널 매출 전망도 소폭 상향했다. 2016년, 2017년 영업이익은 1.5%, 0.8% 상향되었다.

## ■ Negatives : 단일 브랜드 의존도는 중기적으로 성장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2분기 화장품 면세점 매출 비중은 33%로 전년대비 10.9%p 상승했고 'Whoo' 브랜드 매출액이 3,160억원에 달해 매출 비중이 39%로 전년대비 7.7%p 상승했다. 중국 현지 사업 성장률도 둔화, 단일 브랜드와 단일 채널은 2016년 이후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 결론 : 대중국 화장품 사업 도약, 투자 의견 '매수' 유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00,000원을 유지한다(SOTP, 2016~2017년 평균, 내재 PER 33배). 현재 12MF PER이 26.4배로 화장품 업종 평균 PER 29배를 하회,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다. 프리미엄 화장품 위주로 대중국 사업이 도약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이 주도하는 인바운드 시장에서 가장 빠른 실적 개선을 시험하고 있다. 3분기 실적 모멘텀 정점, 이후 완만한 실적 개선을 예상된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539	1,554	1.0	1,527	2.3	18.5	6,193	6,164
영업이익	225	225	0.1	215	(3.5)	34.1	888	864
영업이익률	14.6	14.5	(0.1)	14.1	(0.9)	1.7	14.3	14.0
세전이익	213	206	(3.3)	209	(5.8)	32.4	853	830
순이익	158	156	(1.2)	152	(1.3)	36.3	633	601

\*상기 보고서는 2016년 7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SK하이닉스(000660)

## 매수(유지)

목표가: 38,000원(유지)

종가(7/26): 32,050원

## 실적 추정치 상향 시작

## ■ What's new : 2분기 DRAM 및 NAND bit growth 예상 상회

2분기 SK하이닉스의 DRAM 및 NAND의 bit growth가 예상을 상회했다. DRAM bit growth는 18%로 가이드선 15%를 상회했고 NAND bit growth도 52%로 30%대의 가이드선을 상회했다. DRAM의 경우 PC 및 스마트폰 완제품 수요가 부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PC업체들의 재고조정 마무리로 인한 수요 반등과 중국 스마트폰업체들의 신모델 출시 및 탑재량 증가 등 수요 반등 요인이 있었다. NAND의 경우는 SSD용 NAND수요 증가와 모바일 NAND 탑재량 증가 등이 수요증가의 원인이었다. 3분기에도 DRAM과 NAND의 수요 회복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 Positives : DRAM 및 NAND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시작

DRAM가격 흐름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PC DRAM 가격의 안정화와 모바일 DRAM의 가격 하락폭 축소가 나타났고 7월부터는 PC DRAM의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PC DRAM 가격의 상승과 모바일 DRAM 가격하락폭 축소로 3분기 SK하이닉스의 DRAM 가격은 전분기 대비 5% 하락해 2분기 하락폭 11% 대비 하락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NAND는 6월부터 TLC와 MLC 가격 모두 상승 반전해 손실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3분기 NAND 가격은 전분기 대비 3% 상승해 BEP 도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비록 3D NAND 개발이 경쟁사 대비 뒤처지고 있지만 업황개선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은 주가 상승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 ■ Negatives : 모바일 DRAM 2z nm 생산은 3분기부터 본격화

2z nm 생산이 여전히 계획보다 더딘 상황이다. 2z nm PC DRAM은 2분기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됐지만 모바일 DRAM은 여전히 주요 고객사와의 쉼 작업이 진행 중으로 당초 예상보다 진행이 느린 상황으로 판단된다. 연말까지 2z nm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당초의 계획도 40%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느린 공정전환 속도로 인해 3분기 원가절감 폭이 둔화될 전망이지만 DRAM 가격의 상승과 출하량 증가로 DRAM사업의 이익은 2분기를 저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 결론 : 3분기 영업이익 5,619억원 예상, 목표주가 38,000원 유지

메모리 제품의 가격이 반등하면서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8,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6년 추정BPS에 목표PBR 1.2배를 적용했다. DRAM 공정전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DRAM 및 NAND 수급 개선과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815	3,941	3.3	3,790	7.8	(15.0)	15,751	15,578
영업이익	447	453	1.3	450	(19.4)	(67.1)	2,037	2,096
영업이익률	11.7	11.5	(0.2p)	11.9	(3.9p)	(18.1p)	12.9	13.5
세전이익	417	383	(8.2)	428	(31.4)	(72.2)	1,917	2,018
순이익	333	286	(14.1)	337	(35.6)	(74.2)	1,533	1,619

\*상기 보고서는 2016년 7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비츠로셀(082920)

## 매수(유지)

목표가: 15,000원(상향)

종가(7/26): 12,000원

## 스마트미터기용 전지 수익성 입증

## ■ What's new : 매출액 전망치 하회, 영업이익은 상회

비츠로셀이 연간(6월 결산, 3Q15~2Q16) 및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한 267억원, 영업이익은 112.9% 증가한 6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인도 국방부향 앰플전지 매출이 다음 분기로 이연되면서 우리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25.2%로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 고마진의 스마트미터기용 보빈(Bobbin)전지 매출이 2분기에 집중돼 product mix 효과로 수익성이 급등했다.

## ■ Positives : 스마트미터기용 보빈전지 수익성 입증

2분기 매출액 중 보빈전지는 203억원(+37.3% YoY)으로 파악된다. 보빈전지 매출이 급증한 반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군용 와운드(Wound) 전지 매출이 계절성 영향으로 줄어 마진이 크게 개선됐다. 보빈전지 매출액 증가 이유는 1분기 때 일부 이연된 유럽과 북미향 가스/수도미터기 매출이 이번 분기에 잡힌 영향도 있지만 스마트미터기용 전지 수요가 선진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실적을 통해 일부 스마트미터기용 전지 마진이 25%를 넘는 것으로 증명됐다. 17년(3Q16~2Q17) 보빈전지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661억원으로 두 자리 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 Negatives : 고온전지 매출 회복세 미미

석유 및 가스 시추용으로 쓰이는 고온전지 매출 회복은 유가 영향으로 더디게 진행 중이다. 16년 고온전지 매출액은 65억원으로 전년 93억원 대비 28억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유의미한 회복까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 국방부향 앰플(Ampoule)전지 매출 지연으로 2분기 매출액이 기존 전망치를 하회했으나 다음 분기에 인식될 예정이라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 ■ 결론 : 목표주가 19% 상향, 17년에도 꾸준한 성장세 전망

비츠로셀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2,600원에서 15,000원으로 19%상향한다(6월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으로 기존 목표주가 14,000원에서 12,600원으로 변경됨). 기존 목표 PER 16배(글로벌 경쟁업체 Saft의 12MF PER 적용)에 수익성 높은 스마트미터기 수요 확산과 앰플전지 등 군용 특수전지 매출(17년 139억원, +334% YoY) 본격화를 반영해 17년 순이익을 132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0.1	26.7	(11.2)	29.2	30.3	23.9	115.8	116.2
영업이익	5.9	6.7	14.4	4.9	171.3	112.9	17.4	18.6
영업이익률	19.5	25.2	5.6	16.8	-	-	15.0	16.0
세전이익	5.9	7.3	25.5	-	211.4	123.0	17.8	-
순이익	4.4	6.1	38.0	4.1	198.9	121.0	15.1	15.6

\*상기 보고서는 2016년 7월 2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스카이라이프(053210)

## 매수(상향)

목표가: 23,000원

종가(7/26): 18,000원

## 수익, 가입자 모멘텀이 돋보인다

## ■ What's new :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

2분기 영업실적은 우리의 추정치 및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매출액은 T커머스 송출 수수료 등 플랫폼 매출이 크게 늘어 우리의 추정치를 5.3% 상회했으며 영업이익도 매출 호조로 30.9% 웃돌았다. 매출액은 플랫폼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5년 2분기에 일회성 이익(NDS사와 소송 관련 1분기 128억원, 2분기 120억원 환입)이 반영된 데 따른 영향으로 6.4% 감소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57.8%나 늘었다. 2분기 수익이 의미 있게 개선된 것이다.

## ■ Positives : 플랫폼 매출 호조, 가입자 증가, UHD 비중 상승 등 긍정적

플랫폼 매출 증가, 가입자 증가세, ARPU가 높은 UHD 비중 상승으로 모멘텀을 맞고 있다. 첫째,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이 증가해 16년 플랫폼 매출액은 전년대비 15.7% 증가할 전망이다. 2분기에 T커머스 사업자가 8개에서 10개로 늘었고 하반기에도 추가될 것이다. 기존 TV 홈쇼핑의 가입자당 수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둘째, KT와의 협업 마케팅을 강화한 데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접시 없는 위성방송)법이 발효되어 위성방송 가입자 유치가 용이할 전망이다. 16년에 가입자가 9.8만명 늘어 15년 4.9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셋째, 15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UHD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UHD 채널이 15년 3개에서 16년 6개로 늘어날 것이다. UHD TV 요금은 10,000원으로 HD 대비 3,000원 비싸 ARPU 증가에 긍정적이다. UHD 가입자는 15년 12만명에서 16년에 4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17년에는 ARPU가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 ■ Negatives : 합산 점유율 규제, 콘텐츠 비용 부담 증가

KT와 스카이라이프는 합산 점유율 33.3% 규제를 받아 양사가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여력은 3.1%p(100만명 정도)다. 18년 5월 일몰 예정인 점유율 규제가 연장되면 가입자 유치가 제한될 것이다. 콘텐츠 구매 비용 증가도 비용 부담 요인이다.

## ■ 결론 : 매수로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23,000원으로 제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며 목표주가를 23,000원으로 제시한다. 목표주가는 12MF EPS에 목표 PER 13.6배(과거 2년 평균)를 적용해 산출했다. 매수로 상향한 근거는 네 가지다. 1) 홈쇼핑 수수료 매출 증가로 수익이 호조세다. 16년, 17년 영업이익을 각각 12.8%, 16.8% 상향 조정했다. 2) CATV SO와 달리 가입자가 증가 추세다. 3) UHD 가입자 비중 상승으로 질적 성장이 예상된다. 4) 배당수익률이 2.1%로 높으며 향후 배당이 증가할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53.3	161.4	5.3	155.8	7.6	4.9	643.4	643.9
영업이익	22.1	29.0	30.9	24.8	25.8	(6.4)	96.1	91.8
영업이익률	13.3	18.0	4.6	15.9	2.6	(2.2)	14.9	14.3
세전이익	21.7	29.1	34.1	24.3	22.6	(9.8)	96.6	93.6
순이익	16.3	22.1	35.6	19.1	22.4	(14.1)	73.4	71.3

주: 별도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7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한국항공우주(047810)

## 매수(유지)

목표가: 110,000원(유지)

종가(7/26): 79,500원

## 안전비행 지속

## ■ What's new : 시장기대치 소폭 상회하는 실적

한국항공우주(이하 KAI)가 또 다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8,013억원, 영업이익 950억원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8%, 23% 늘어난 것이다. 특히 KUH(수리온헬기) 관련 일회성 비용 50~100억원을 인식했음에도 영업이익률은 11.9%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0.5%p,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것이고 컨센서스 대비로는 1.1%p 높은 것이다. 영업외부문에서는 특별한 일회성 이슈가 없어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0.1% 늘어난 684억원을 기록했다.

## ■ Positives : 일회성 포함해도 영업이익률 11.9%

2분기 영업이익률은 11.9%다. 특히 수리온 윈드실드 관련 일회성 비용(50~100억원)이 발생했음에도 201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1,163원)도 우호적이었으나, 최근 지속적인 양호한 실적의 주요인은 양산 안정화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고정비 부담 감소다. 군수 및 완제기 수출은 T-50시리즈와 수리온 중심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기체부품은 Airbus 자동차 생산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방산부문에서 KF-X 체계개발 관련 매출도 약 1,000억원 발생하는 등 개발 프로젝트들도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 ■ Negatives : 아직 아쉬운 수주액

올해 상반기 누적 수주액은 783억원이고 수주잔고는 16.9조원이다. 신규수주 목표가 6.5조원(방산 3.2조원, 완제기 수출 1.7조원, 기체부품 1.7조원)임을 감안하면 부진한 실적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수주 부진 우려가 크게 완화될 것이다. 방산부문은 정부 계획하에 수리온 3차 양산(1.7조원)과 상륙기동헬기(0.7조원) 등 대규모 수주가 예상된다. 완제기 수출은 현재 태국(후속 발주), 이라크 등 다수의 국가와 수주협상을 진행 중이고, 기체부품도 약 0.7~0.8조원 규모의 보잉 777x wing의 입찰 결과가 8월에 발표되는 등 상반기 대비 강한 수주모멘텀이 예상된다.

## ■ 결론 : 연말로 갈수록 더해지는 KAI의 매력

상반기 주가 부진의 주요인이었던 두가지 risk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량출회 가능 주식 물량 11% 중 한화테크윈의 6%는 출회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현대차 5%-1주는 매각 시 오버행 risk 마무리로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상 오버행 risk는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신규수주가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고 연말부터 T-X(미국 공군 훈련기 교체사업, KAI 추산 9조원 규모)와 관련한 모멘텀도 부각될 것이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10,000원(2016F PER 36배, 2015~2017F EPS CAGR 36%)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820	801	(2.3)	825	12.8	18.0	3,503	3,433
영업이익	88	95	8.3	89	17.0	23.1	362	362
영업이익률	10.7	11.9	1.2	10.8	0.4	0.5	10.3	10.5
세전이익	76	91	19.1	NA	23.4	22.8	345	NA
순이익	58	68	18.7	63	(9.1)	20.1	280	274

\*상기 보고서는 2016년 7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현대산업(012630)

## 매수(유지)

목표가: 65,000원(유지)

종가(7/26): 44,000원

## 전 부문 수익성 개선으로 서프라이즈

## ■ What's new : 예상을 크게 상회, 자체사업 원가를 하락

2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60% 늘어난 1,600억원으로 서프라이즈였다. 1) 1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던 '대구월배2' 자체사업이 완공되며 믹스가 개선됐고, 2) 수원2차 미분양 판매에 따른 영업이익이 90억원 반영됐기 때문이다. 3분기에도 미분양 판매에 따른 영업이익 약 100억원 유입이 예상된다. 건축 원가율도 77.1%로 이례적으로 낮았는데 천호 현대백화점 공사에서 준공 정산차익 3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 ■ Positives : 자체사업 원가를 완전한 정상화

자체사업 원가율은 69.9%로 전기 대비 10.2%p 감소하며 2012년 이래 가장 좋은 수준을 나타냈다. 1) 작년 하반기 분양한 '김포사우'와 '김포한강' 분양률이 100%, 95%에 도달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기성이 반영돼, 두 프로젝트의 매출비중은 16%까지 상승했다(자체사업 매출은 계약률에 비례해 인식). 2) 1분기 '대구월배' 매출 비중이 30%에 육박했지만 2분기는 7%로 하락, 금융위기 이후 저마진 사업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3) 업종 공통의 현상이지만 주택 공급량이 늘며 규모의 경제효과와 원자재 가격 하락영향으로 수익성이 초과 개선되고 있다. 이 흐름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반영해 2016~2017년 영업이익을 각각 18%, 28% 상향했다. 그러나 12MF BPS에 1.6배를 적용해 산출한 기존 목표주가와 괴리가 크지 않아 기존 목표주가를 유지한다.

## ■ Negatives : 면세사업은 아직 큰 개선은 없어

HDC신라는 주요 브랜드 입점이 진행되며 매출이 증가세다. 그러나 1분기 26억원의 지분법손실에 이어, 2분기에도 11억원의 지분법손실을 기록했다. 하반기 추가 브랜드가 입점되며 흑자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나, 예상대비 속도는 늦다. 우리는 2017년 매출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9,5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2017년 EPS 기준, PER 15배를 적용해 면세사업 가치는 주당 3,474원으로 추정한다.

## ■ 결론 : 막대한 유동성 확보, 차기 성장동력의 주요 재원

연결기준 1천억원, 별도기준 4,460억원의 순현금 상태로 연결기준으로도 순현금구조로 전환됐다. 2년 새 약 2조원의 현금을 창출한 셈이다. 주택위주의 내수사업 구조라 peer 중 가장 빠르게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축적한 현금은 차기 성장동력의 주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재건축 고분양가 규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주택 위주의 비즈니스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막대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SOC 지분 투자나 M&A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목표주가 대비 44%의 상승여력을 지녀 매수의견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342	1,208	(10.0)	1,312	23.3	(2.6)	5,116	5,123
영업이익	118	161	36.2	115	87.3	59.6	505	446
영업이익률	8.8	13.3	4.5	8.8	4.5	5.2	9.9	8.7
세전이익	112	161	43.4	106	137.2	51.9	474	409
순이익	74	113	52.1	80	171.1	123.8	301	275

\*상기 보고서는 2016년 7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현대차(005380)

## 매수(유지)

목표가: 180,000원(유지)

종가(7/26): 136,000원

## 편하지 않더라도 사야 할 시점

## ■ What's new: 양호한 2분기 실적

현대차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기타부문의 호실적이 돋보였다. 기타 부문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대로템의 실적호조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7,618억원을 기록해(OPM 7.1%)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7.2%, 4.7% 상회했다. SUV 판매호조가 지속되며(RV 비중 24.9%, +6%p YoY) ASP가 예상보다 1.4% 높았으며 판매비가 예상보다 1.8% 낮았다. 지분법이익이 중국 가동물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25.9% 증가했으나, 지배주주순이익은 컨센서스를 0.5% 상회하는데 그쳤다. 로템의 비지배주주지분율이 56.64%에 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 Positives: 이익하락세 중단으로 더욱 돋보이는 배당 매력

2분기 영업이익은 이익하락세가 일단락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0.6% YoY). 현대차 영업이익은 14년 1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중간배당으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익하락세가 멈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공언한 배당성향 상승이 주당배당금 증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중간배당금으로 작년과 동일한 주당 1,000원을 공시했다.

## ■ Negatives: 자동차부문의 더딘 회복

자동차부문 수익성이 6.9%로 1분기 6.4%보다 상승했으나 전년동기 8%에 비해서는 부진했다. 사실 우리 추정치와 실제 영업이익과의 차이 1,183억원의 자동차부문이 아닌 기타부문에서의 차이로(1,063억원) 대부분 설명 가능하다. 자동차부문에서의 회복은 중국과 내수에서의 세제혜택 종료, 미국 수요 둔화, 신흥국 부진으로 더디게 나타날 전망이다.

## ■ 결론: 편하지 않은 주식, 그러나 추가 상승여력은 있다

현대차는 거시경제, 해당업계, 회사고유 측면 등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된, 이른바 편하지 않은 종목이다. 그러나 새로운 악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품사에 집중된 시장의 수급,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력, 이익하락세 중단 그리고 배당 매력을 감안 시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대차는 중장기 배당성향으로 글로벌 동종업체 평균인 30%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16년 배당성향으로 20.7%를 전망한다(14/15년 11.1%/16.8%). 이를 전년대비 1.3% 증가하는 우리 순이익 전망치와 결부하면 연간 주당배당 5천원에 해당하며, 배당수익률은 보통주 기준 3.7%, 우선주 기준 5.2%에 달한다(중간배당 포함). 투자조건 매수와 목표주가 18만원을 유지한다(12MF EPS에 목표 PER 7.5배 적용).

(단위: 십억원, %, %p)

	2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4,070	24,677	2.5	24,278	10.4	8.1	94,992	95,051
영업이익	1,644	1,762	7.2	1,683	31.2	0.6	6,270	6,259
영업이익률	6.8	7.1		6.9			6.6	6.6
세전이익	2,193	2,382	8.6	-	10.1	0.5	8,980	-
순이익	1,616	1,658	2.6	1,649	(1.7)	(2.6)	6,502	6,507

\*상기 보고서는 2016년 7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김영현(younghkim@truefriend.com) ☎ 02-3276-6186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7/21(목)	7/22(금)	7/25(월)	7/26(화)	7/27(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2.22	2,010.34	2,012.32	2,027.34	2,025.05
	등락폭	-3.24	-1.88	1.98	15.02	-2.29
	등락종목	상승(상한)	423(1)	374(0)	474(1)	303(0)
		하락(하한)	366(1)	436(0)	320(0)	483(0)
	ADR	105.76	117.52	116.33	112.70	102.78
	이격도	10 일	100.41	100.08	100.06	100.63
		20 일	101.49	101.17	101.06	101.58
	투자심리	60	6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91	317	350	403
	거래대금	(십억 원)	3,921	3,697	4,053	4,445
코스닥	코스닥지수	708.12	707.54	704.96	705.4	701.09
	등락폭	3.09	-0.58	-2.58	0.44	-4.31
	등락종목	상승(상한)	534(2)	435(4)	545(3)	404(1)
		하락(하한)	539(0)	636(0)	531(0)	665(0)
	ADR	103.39	103.27	102.85	102.89	102.24
	이격도	10 일	100.99	100.69	100.21	100.19
		20 일	102.94	102.40	101.61	101.34
	투자심리	80	80	70	70	60
	거래량	(백만 주)	960	1106	897	1007
	거래대금	(십억원)	4,479	3,953	3,484	3,631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83.3	1,309.5	931.6	287.0	142.6	142.6	89.5	12.3	257.7	29.9
	매도	2,306.6	1,065.8	1,035.3	204.4	174.0	252.9	120.5	17.6	265.9	46.6
	순매수	-123.3	243.7	-103.7	82.6	-31.4	-110.3	-31.0	-5.3	-8.2	-16.7
	7월 누계	-921.4	3,570.3	-2,970.3	-74.4	-565.6	-1,405.7	-226.5	-77.8	-620.3	321.5
	16년 누계	-4,410.4	7,213.3	-4,141.3	-884.4	1,516.2	-3,167.2	-1,031.5	-764.9	190.8	1,338.3
코스닥	매수	3,266.9	170.8	102.4	28.1	18.0	20.3	11.7	1.9	22.4	19.3
	매도	3,183.9	188.8	157.8	40.3	18.1	47.2	24.3	2.2	25.8	28.9
	순매수	83.0	-18.0	-55.4	-12.1	-0.1	-26.9	-12.6	-0.3	-3.4	-9.6
	7월 누계	716.6	131.8	-497.1	-65.6	-13.9	-183.4	-53.0	-9.9	-171.4	-351.3
	16년 누계	3,911.2	347.0	-2,814.5	-346.8	-122.7	-888.6	-480.7	-121.2	-854.6	-1,443.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895	화학	-32,510
건설업	1,772	서비스업	-30,370
은행	1,547	의약품	-15,334
KODEX 인버스	12,366	아모레퍼시픽	-13,781
현대중공업	7,046	삼성전자	-12,302
기업은행	3,120	KODEX 200	-10,582
삼성물산	2,146	LG생활건강	-10,271
KOSEF 단기자금	2,114	SK이노베이션	-6,718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21,192	의약품	-30,563
철강금속	14,599	화학	-30,144
전기전자	14,021	미분류	-9,658
POSCO	16,256	한미약품	-23,784
현대중공업	13,990	아모레퍼시픽	-16,362
현대차	10,475	LG생활건강	-11,095
LG디스플레이	9,029	삼성전자	-9,239
효성	6,870	호텔신라	-7,45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3,195	기타금융업	-2,088
음식료	477	서비스업	-1,897
증권	284	철강금속	-1,636
KODEX 인버스	4,779	KODEX 레버리지	-3,036
TIGER 헬스케어	3,063	한미약품	-1,867
대한유화	2,883	KODEX 200	-1,749
LG생활건강	746	POSCO	-1,689
CJ대한통운	432	TIGER 경기방어	-1,44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6,260	화학	-10,596
미분류	5,958	의약품	-9,555
기타금융업	5,134	서비스업	-8,703
KODEX 200	8,673	한미약품	-9,610
POSCO	3,994	아모레퍼시픽	-7,765
KB금융	3,955	삼성전자	-4,836
하나금융지주	2,983	한미사이언스	-3,526
KT&G	2,776	TIGER 200	-3,131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51,343	화학	-108,145
전기전자	30,910	의약품	-69,508
철강금속	18,770	서비스업	-46,623
현대중공업	31,711	한미약품	-54,955
POSCO	19,441	아모레퍼시픽	-51,761
LG디스플레이	13,279	LG생활건강	-39,578
LG전자	12,903	아모레G	-17,593
SK하이닉스	10,551	한미사이언스	-16,295
삼성물산	9,602	삼성전자	-9,837
효성	9,317	호텔신라	-8,813
두산인프라코어	9,101	LG화학	-8,048
기업은행	8,548	현대산업	-6,443
현대미포조선	7,380	SK이노베이션	-6,19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93,931	의약품	-7,289
기타금융업	32,110	유통업	-2,717
운수장비	22,305	은행	-2,452
SK하이닉스	65,920	LG생활건강	-45,638
아모레퍼시픽	39,434	기아차	-9,548
한국항공우주	18,356	호텔신라	-8,468
엔씨소프트	15,613	롯데케미칼	-8,140
현대건설	14,551	코오롱인더	-5,545
하나금융지주	13,966	기업은행	-4,258
LG전자	13,552	KODEX 인버스	-3,578
S-Oil	11,914	코웨이	-3,560
두산인프라코어	11,511	삼성엔지니어링	-3,391
신한지주	11,408	한미사이언스	-3,23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비금속	527	제약	-6,917
금융	115	화학	-3,314
부동산	0	의료,정밀기기	-2,305
동아엘텍	776	에스티팜	-2,912
파라다이스	773	우리손에프앤지	-1,776
인바디	663	디오	-1,682
테스	558	에스엠	-1,544
아이씨디	531	SK바이오랜드	-1,40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2,418	인터넷	-3,195
오락,문화	1,100	제약	-3,049
기계,장비	669	IT부품	-1,042
CJ E&M	2,043	카카오	-2,631
에스엠	1,615	주성엔지니어링	-1,949
SK머티리얼즈	1,372	셀트리온	-1,549
고영	627	에스티팜	-1,136
이지바이오	588	슈피겐코리아	-99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도매	345	반도체	-616
음식료,담배	236	운송장비,부품	-429
제약	219	섬유,의류	-183
서원인텍	321	에스앤에스텍	-427
서부T&D	309	코다코	-303
뉴트리바이오텍	242	원익IPS	-267
셀트리온	182	포스코 ICT	-254
비아트론	161	지엔코	-18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연구,개발	903	제약	-1,247
통신장비	714	오락,문화	-1,224
도매	409	의료,정밀기기	-235
바이오메드	860	SK머티리얼즈	-1,346
팅크웨어	615	에스엠	-1,324
주성엔지니어링	521	에스티팜	-803
아이씨디	483	NEW	-520
에프티이앤이	482	보령메디앙스	-430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080	제약	-16,506
기계,장비	944	화학	-5,590
도매	823	농업	-5,032
서울반도체	1,687	에스티팜	-10,890
동아엘텍	1,548	우리손에프앤지	-5,145
파라다이스	1,221	에스엠	-3,207
서부T&D	1,021	에스24	-2,402
아이씨디	972	SK바이오랜드	-2,260
CJ E&M	906	카카오	-2,252
휴젤	778	뉴트리바이오텍	-1,936
솔브레인	762	디오	-1,934
MDS테크	721	연우	-1,842
아프리카TV	615	녹십자랩셀	-1,81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6,621	농업	-10,148
금속	1,890	제약	-8,337
디지털컨텐츠	1,875	IT부품	-4,800
셀트리온	3,498	우리손에프앤지	-9,988
비아트론	2,552	케어젠	-3,717
SK머티리얼즈	2,441	동진썬미켈	-3,433
디오	2,384	에스티팜	-2,296
메디톡스	2,335	크리스탈	-1,464
조이시티	1,619	인트론바이오	-1,329
CJ E&M	1,571	인바디	-1,316
컴투스	1,468	NHN한국사이버결제	-1,315
원익IPS	1,334	모두투어	-1,283
연우	1,203	블루콤	-1,078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QV 에너지 TOP5 ETN	22 일	BYC	27 일
두산중공업	19 일	메리츠금융지주	21 일
진도	13 일	맥쿼리인프라	21 일
TIGER 코스피고배당	12 일	LG유플러스	21 일
아시아나항공	12 일	메리츠화재	21 일
QV 내수소비 TOP5 ETN	11 일	엔씨소프트	20 일
경동가스	11 일	현대에이치씨엔	19 일
TIGER 원유인버스선물(H)	10 일	인팩	19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픽셀플러스	25 일	하이록코리아	30 일
유비쿼스	13 일	골프존	23 일
티비씨	12 일	진성티아씨	17 일
바텍	11 일	유진테크	16 일
세운메디칼	9 일	서전기전	15 일
아프리카TV	9 일	네패스	15 일
동화기업	9 일	동국알앤에스	13 일
서원인텍	8 일	티엘아이	13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현대차	135,639	아모레퍼시픽	96,657
삼성전자	95,258	SK하이닉스	91,871
삼성전기	61,565	하나금융지주	63,345
KODEX 레버리지	58,878	LIG넥스원	51,276
현대중공업	50,773	엔씨소프트	50,470
KB금융	46,572	KT&G	45,863
기업은행	37,701	고려아연	41,300
하나금융지주	29,865	SK텔레콤	39,464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8,168	셀트리온	30,591
휴젤	7,106	SK머티리얼즈	22,130
서울반도체	4,292	컴투스	10,054
팅크웨어	4,179	에스티팜	9,510
오스템임플란트	4,035	디오	8,805
유니테스트	3,999	서울반도체	7,647
원익홀딩스	3,987	CJ E&M	6,104
아이씨디	3,787	메디톡스	5,631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30,910	93,931 124,840
운수장비		51,343	22,305 73,648
기타금융업		6,540	32,110 38,650
SK하이닉스		10,551	65,920 76,471
POSCO		19,441	10,879 30,320
LG전자		12,903	13,552 26,455
한국항공우주		3,488	18,356 21,845
두산인프라코어		9,101	11,511 20,612
LG디스플레이		13,279	6,940 20,219
현대건설		5,633	14,551 20,183
하나금융지주		6,018	13,966 19,985
삼성물산		9,602	4,036 13,638
신한지주		1,638	11,408 13,046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계,장비		944	1,471 2,415
종합건설		157	1,525 1,682
방송서비스		1,080	349 1,429
서울반도체		1,687	804 2,490
CJ E&M		906	1,571 2,477
파라다이스		1,221	1,060 2,281
컴투스		476	1,468 1,944
동아엘텍		1,548	257 1,806
아이씨디		972	316 1,288
서부T&D		1,021	106 1,128
바이로메드		542	530 1,073
에프티앤이		344	661 1,005
서한		13	980 99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오리온	36 일	부국증권	21 일
롯데손해보험	35 일	한솔제지	18 일
QV 하드웨어 TOP5 ETN	24 일	아비스타	18 일
SK케미칼	24 일	하이트론	18 일
이마트	23 일	사조대림	16 일
영흥철강	23 일	코리아오토글라스	13 일
맥쿼리인프라	22 일	일양약품	13 일
롯데쇼핑	22 일	한솔아트원제지	13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하이록코리아	29 일	와이비엠텔	50 일
유니크	28 일	대동금속	24 일
쿠첸	22 일	텔레칩스	23 일
휴온스글로벌	19 일	YTN	19 일
에스24	18 일	하이텍팜	12 일
아이디스	17 일	신일제약	12 일
코텍	16 일	로스웰	10 일
무림SP	16 일	와이엠씨	10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아모레퍼시픽	-140,873	LG화학	-76,698
KODEX 인버스	-118,928	삼성전자	-70,273
한미약품	-85,061	LG생활건강	-51,771
LG생활건강	-60,267	현대차	-36,000
LIG넥스원	-52,701	호텔신라	-32,226
KT&G	-46,209	기업은행	-18,776
고려아연	-43,347	한세실업	-10,455
아모레G	-37,235	코오롱인더	-9,446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에스티팜	-33,037	우리손에프앤지	-9,988
CJ E&M	-12,953	카카오	-8,748
에스엠	-11,732	케어젠	-6,966
카카오	-11,289	초록뱀	-4,321
녹십자랩셀	-10,806	휴젤	-4,267
SK머티리얼즈	-9,633	게임빌	-4,082
NEW	-9,422	원익홀딩스	-3,793
아이티센	-7,357	제넥신	-3,550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108,145	9,673 -98,472
의약품		-69,508	-7,289 -76,796
서비스업		-46,623	11,949 -34,674
LG생활건강		-39,578	-45,638 -85,216
한미사이언스		-16,295	-3,237 -19,532
호텔신라		-8,813	-8,468 -17,281
SK이노베이션		-6,190	-1,327 -7,517
KODEX 인버스		-3,621	-3,578 -7,199
일동제약		-5,631	-1,566 -7,196
에이블씨엔씨		-3,831	-2,072 -5,903
녹십자		-5,591	-289 -5,880
코웨이		-1,522	-3,560 -5,082
코스맥스		-3,902	-449 -4,350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16,506	-8,337 -24,843
농업		-5,032	-10,148 -15,180
IT부품		-4,167	-4,800 -8,967
우리손에프앤지		-5,145	-9,988 -15,133
에스티팜		-10,890	-2,296 -13,186
케어젠		-372	-3,717 -4,089
에스24		-2,402	-270 -2,673
뉴트리바이오텍		-1,936	-646 -2,582
NHN한국사이버결제		-930	-1,315 -2,246
NEW		-1,524	-524 -2,048
녹십자랩셀		-1,810	-102 -1,912
인트론바이오		-559	-1,329 -1,888
블루콤		-774	-1,078 -1,85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6	39,656	
SK하이닉스	648	20,451	
S-Oil	204	15,583	
SK이노베이션	71	10,611	
호텔신라	124	7,550	
유한양행	24	7,162	
NHN엔터테인먼트	110	7,048	
현대차	49	6,78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56	5,148	
CJ E&M	44	3,093	
케어젠	8	1,105	
다날	163	1,032	
NHN한국사이버결제	37	896	
보성파워텍	68	650	
아가방컴퍼니	73	649	
에스엠	18	612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017	6,146,391	
현대중공업	9,654	1,071,609	
NAVER	1,405	997,238	
한미약품	1,530	988,700	
LG전자	16,845	916,341	
KT&G	6,594	820,997	
SK하이닉스	25,527	818,148	
POSCO	3,576	811,80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3,602	2,452,225	
카카오	11,035	1,009,659	
바이로메드	2,268	289,400	
로엔	2,893	238,996	
컴투스	1,850	218,254	
파라다이스	10,770	171,242	
메디투스	350	152,866	
이오테크닉스	1,355	138,849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기타금융업	3,251	운수장비	-5,675
철강금속	1,333	유통업	-4,735
기계	285	종이목재	-3,985
대우건설	4,389	한진중공업	-4,065
BNK금융지주	2,249	삼성중공업	-3,121
SK하이닉스	1,952	LG디스플레이	-2,404
하나금융지주	1,876	SG세계물산	-2,318
한온시스템	1,648	한화생명	-2,200
우리종금	1,425	한솔홈데코	-1,374
미래에셋대우	1,326	NH투자증권	-1,349
LG전자	1,174	한솔제지	-1,283
우리은행	907	한화케미칼	-1,232
한진해운	710	기업은행	-1,19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전문기술	1,475	소프트웨어	-1,003
디지털컨텐츠	615	반도체	-871
금융	571	인터넷	-432
포스코 ICT	1,629	루멘스	-2,226
원익홀딩스	613	대아티아이	-1,205
한국캐피탈	531	셀트리온	-826
셀루메드	527	삼진엘앤디	-631
시그네텍스	387	원익IPS	-462
컴투스	331	다우데이타	-448
쇼박스	299	제이콘텐츠리	-435
SFA반도체	274	동진썬미켈	-416
MBK	274	동국S&C	-378
아나패스	267	서희건설	-363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7/21(목)	7/22(금)	7/25(월)	7/26(화)	7/27(수)
외국인	7,213.3	3,570.3	746.3	44.6	72.0	193.4	192.6	243.7
기관계	-4,141.3	-2,970.3	-234.6	-82.3	42.3	-107.7	16.8	-103.7
(투신)	-3,167.2	-1,405.7	-247.4	-69.2	-59.5	0.4	-8.8	-110.3
(연기금)	450.1	-460.2	-202.1	-37.8	14.3	-120.6	-55.2	-2.9
(은행)	-764.9	-77.8	-18.7	1.0	-5.0	-2.6	-6.9	-5.3
(보험)	1,516.2	-565.6	-223.1	-129.6	2.9	-29.3	-35.7	-31.4
개인	-4,410.4	-921.4	-464.4	33.4	-120.1	-81.0	-173.3	-123.3
기타	1,338.3	321.5	-47.4	4.2	5.9	-4.7	-36.1	-16.7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7/20(수)	7/21(목)	7/22(금)	7/25(월)	7/26(화)
KOSPI	2,011.3	1,915.6	1,961.3	2,015.5	2,012.2	2,010.3	2,012.3	2,027.3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2,618.4	22,738.2	23,104.1	23,104.1	23,040.0
(증감액)	-3,802.5	1,630.7	6,853.1	-281.9	119.8	365.9	0.0	-64.1
(회전율)	29.9	34.0	28.8	34.1	36.9	34.0	32.6	33.4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247.4	275.4	381.4	-52.1	-157.0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280.0	3,300.2	3,313.8	3,326.7	3,333.3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4,070.7	4,094.6	4,125.3	4,144.9	4,155.8
미수금	92.9	117.6	151.0	122.1	113.4	114.2	115.2	109.5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7/20(수)	7/21(목)	7/22(금)	7/25(월)	7/26(화)
전체주식형	70,555	-4,204	-1,706	35	-227	-88	-7	-68
(ex.ETF)		-3,701	-1,311	21	-123	-47	-1	-55
국내주식형	55,620	-4,143	-1,477	40	-218	-83	-13	-66
(ex.ETF)		-3,638	-1,087	27	-114	-42	-7	-53
해외주식형	14,935	-61	-229	-5	-9	-5	7	-2
(ex.ETF)		-64	-224	-5	-9	-5	7	-2
주식혼합형	7,980	-19	-45	-5	-10	-13	0	3
채권혼합형	30,102	-857	-570	-116	-8	-50	19	0
채권형	108,026	19,071	4,279	66	218	55	870	345
MMF	124,610	29,613	16,957	-1,292	-1,808	79	-1,556	1,01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7/21(목)	7/22(금)	7/25(월)	7/26(화)	7/27(수)
한국	5,690	2,527	680	39	63	169	169	215
대만	9,316	3,910	1,898	501	162	183	369	-
인도	3,874	919	264	-	-	-	-	-
인도네시아	1,659	675	168	38	-18	8	29	-
태국	1,883	845	218	74	58	54	80	-
남아공	3,069	2,745	795	60	-	53	13	-
필리핀	982	342	80	28	-2	13	26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7/21(목)	7/22(금)	7/25(월)	7/26(화)	7/27(수)
회사채 (AA-)	2.11	1.67	1.66	1.65	1.65	1.64
회사채 (BBB-)	8.06	7.74	7.73	7.73	7.72	7.72
국고채 (3년)	1.66	1.23	1.23	1.22	1.22	1.22
국고채 (5년)	1.81	1.26	1.25	1.25	1.24	1.24
국고채 (10년)	2.08	1.44	1.42	1.42	1.41	1.40
미 국채 (10년)	2.27	1.56	1.56	1.57	1.56	-
일 국채 (10년)	0.27	0.22	0.22	0.24	0.24	-
원/달러	1,172.50	1,135.90	1,134.40	1,137.00	1,134.90	1,134.20
원/100엔	972.63	1,069.89	1,070.40	1,070.41	1,089.88	1,076.09
엔/달러	120.55	106.17	105.98	106.22	104.13	105.40
달러/유로	1.09	1.10	1.10	1.09	1.10	1.09
DDR3 1Gb (1333MHz)	1.00	1.04	1.06	1.06	1.06	-
DDR3 2Gb (1333MHz)	1.13	1.10	1.08	1.08	1.08	-
NAND Flash 16Gb (MLC)	1.46	1.57	1.57	1.57	1.57	-
CRB 지수	176.81	184.52	182.90	181.31	181.21	-
LME 지수	2,217.9	2,431.8	2,412.7	2,406.9	2,404.5	-
BDI	478	726	718	709	696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44.75	44.19	43.13	42.92	-
금 (달러/온스)	1,060.00	1,321.15	1,320.75	1,313.15	1,323.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8	19	20	21	22
美> Williams 연준이사 연설 Kashkari, Bullard 연준이사 연설	美> 6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189, 1,165, 1,164)  독일> ZEW 서베이 예상 (-6.8, 9.0, 19.2)		유럽> <b>ECB 통화정책회의</b> <b>(-0.40%, -0.40%, -0.40%)</b>  美> 6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5.57, 5.48, 5.53)	유럽> 7월 마켓 예비 제조업 PMI (51.9, 52.0, 52.8)  독일> 7월 마켓 예비 제조업 PMI (53.7, 53.4, 54.5)
25	26	27	28	29
日> 6월 수출 YoY (-7.4%, -11.3%, -11.3%)  실적발표> 韓 S-Oil, LS산전 美 김벌리클라크, 길리어드 사이언스	韓> <b>2분기 GDP QoQ</b> <b>(0.7%, 0.6%, 0.5%)</b>  美> 6월 신규주택매매(천건) (592, 560, 551)  실적발표> 韓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현대산업개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교 LG생활건강 美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맥도날드, 듀폰, 버라이즌, 캐터필러, 3M	실적발표> 韓 LG상사, 현대위아,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한전기술, 이노션 美 애플, 코카콜라, 코닝, 컴캐스트, 보잉	美> <b>FOMC 통화정책회의</b> <b>(n/a, 0.25%, 0.25%)</b>  실적발표> 韓 SK텔레콤, 세아베스틸, GS건설, 삼성SDI, LG전자, 네이버 美 애플, 페이스북, 포드, 마스터카드, 익스페디아, 알파벳, PG&E	日> <b>BOJ 통화정책회의</b> <b>(n/a, n/a, -0.10%)</b>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5%, -0.4%)  유럽> <b>이탈리아 은행 Stress Test</b> <b>결과 발표</b> <b>2분기 GDP QoQ</b> <b>(n/a, 0.3%, 0.6%)</b>  美> <b>2분기 GDP 연간화 QoQ</b> <b>(n/a, 2.6%, 1.1%)</b>  韓> 6월 광공업생산 YoY (n/a, n/a, 4.3%)  실적발표> 韓 삼성화재, KT, 삼성카드, 현대로템, 서울반도체, 기업은행 美 아마존, 엑스 모빌, 제록스, UPS, 세브론
1	2	3	4	5
美> 7월 ISM 제조업지수 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韓> 7월 수출 YoY 유럽> 7월 마켓 제조업 PMI 독일> 7월 마켓 제조업 PMI	美> 6월 PCE 근원 YoY 日> 7월 본원통화 YoY 韓>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유럽> 6월 소매판매 MoM	美> 6월 제조업수주 6월 내구재주문	美> 7월 실업률 7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7월 시간당 평균 임금 독일> 6월 공장수주 MoM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